

전국주민자치박람회 3년 연속 우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회

주민 자발적 참여...따뜻한 자치공동체 꽃피우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주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가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뿌리가 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현안은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이 된다. 광주일보와 한국지방신문 협회가 전국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3년 연속 우수 주민자치회로 선정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자치의 올바른 정착 방향을 들여다본다.

위원 24명 매달 정기회의...관 하위조직 아닌 정책결정 파트너
마을총회서 안전 최종 결정...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축
'밝게 빛나는 우리마을 사업' 학생 안전 귀가·범죄 예방 기여
반찬나눔·마을엄마·도란도란 돌봄교실 등 복지사업 호응 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선 7기 비전으로 '주민이 만드는 자치, 내 삶이 행복한 마을'을 추구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반 마련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축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모델화를 꿈꾸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들어왔던 주민자치위원회와 그 성격과 기능이 크게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 자문역할을 맡았던 것과는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주민들이 모여 협의·결정하는 곳으로, 주민총회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순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처리한다.

또 보통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자명인사들로 구성된 반면,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거친 주민들이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임명된다. 그 만큼 대표성과 다양성은 물론 위원들의 책임감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결정적 차이는 사실상 관의 하위 조직 역할을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 결정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해 대표성,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광산구 주민자치회만의 특징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성 활동보다 조직과 구조 형성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주민자치회 설립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전체과정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광산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생력 확보를 돕고있다. 1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광산구의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우산동은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4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발해 2016년 주민자치회로 탈바꿈 했다.

현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매달 셋째주 수요일 정기회의를 연다. 정기회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다.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 ▲대의협력 ▲문화복지 ▲마을공동체 등 4개가 그것이다.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시한 마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분과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이 정기회의에서 마을총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마을총회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우산동 주민자치회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주민자치 제도다. 주민들은 마을총회에 앞서 총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홍보캠페인과 사전투표로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있다.



우산동 주민들이 LED벽화 점등식 행사를 열고 있는 모습.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그날 만든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



주민들이 마을총회에 앞서 상정될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엄마 창의 융합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19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밝게 빛나는 우리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송우초와 광산중 사잇길을 LED벽화로 밝히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밝게 빛나는 우리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총회에 1순위로 상정된 안건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던 이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길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을총회를 통해 선정된 복지사업 다양하다. 광산구 우산동은 광주시내 대표적인 도농(都農) 복합 지역으로 다른 동네에 견줄 수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 비율과 광산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25% 가장 거주할 정도로 복지수요가 밀집된 지역이다.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 상 종합복지관 2곳, 장애인복지관 1곳, 지역자활센터 1곳 등 복지 관련 인프라가 들어서있지만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동네 구석구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미처 손이 닿지 않았던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다양한 자치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행복한 음식 정겨운 마을! 우산동 반찬나눔'이다.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회 회원 20여명이 그날 만든 국과 조림 등 반찬거리를 마을 어르신들께 배달한다. 반찬나눔은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2016년부터 꾸준히 진행하던 기존 '한술밥day' 사업이 변경된 형태로, 코로나19로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존, 동네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던 방식이 비대면화 됐다.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사업도 펼치고 있다.

'마을엄마'는 '창의융합 놀이 지도사' 과정 운영을 수요한 엄마들이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도란도란 돌봄교실'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된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아 2017년 우수상, 2018년 장려상, 2019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이제 막 발걸음을 땀 전국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먼저 찾는 주민자치회로 꼽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영태 우산동 주민자치회장



“어르신들 많아 마을활동 이해·참여도 높고 배려·협동 넘쳐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 마을활동에 무게중심이 잡힐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최영태(사진) 우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우산동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만300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는 우산동은 전통 마을과 새롭게 조성된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곳으로 전체적인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 곳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활력 없는 동네라고 비쳐질 수 있지만, 오히려 공동체생활에 바탕을 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어르신들 덕분에 역동적인 활동이 펼쳐진다.

최 회장은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마을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른 동네에 비해 배려와 협동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많아 추석, 설에 경모당을 찾아 새마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사업이 보람차다”며 “매년 가을에 여는 가을축제와 음식을 나누는 한술밥프로젝트, 도란도란 이야기 사업 등은 주민들 반응과 참여율이 높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생하는 주민자치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회장은 “행정에서 제공하는 재원이 아닌 주민들이 만들어낸 재원으로 자생적인 주민자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도란도란 마을 가게부'는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기금을 모아 동네가게를 홍보하고 후원하는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 주민들이 매달 5000원씩 모아 장학사업, 커뮤니티 공간 확보, 독거노인들의 장제비 마련을 위한 '1인 1구좌' 사업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2500여만원이 모아졌다.

최 회장은 “행정에 얽매지 않는, 자구적인 재정

독립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며 “많이 가진 사람을 나누고 취약계층은 혜택을 보는 것이 목적이며 기금모금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일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치분권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변모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비영리 단체로 영리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항상 협조해주시는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공공과 주민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 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